 <b>인천광역시</b>		<b>보 도 자 료</b>		<b>재외동포청 최적지</b> <b>인천</b> <b>뿐입니다</b>
		배포일자	2023년 3월 27일(월) 총 2매	
담당 부서	국제협력과	담당자	• 아시아팀장 이창훈 ☎440-3201 • 담당자 안권훈 ☎440-3205	
사진(이미지)	<input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있음	참고자료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없음 <input type="checkbox"/> 있음	
보 도 시 점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		

## **유정복 시장, 지난해 결연 맺은 페르가나주 대표단 접견** **<우즈베키스탄>**

- 지난해 12월 우호협정 체결 후, 페르가나주지사 인천 방문 -
-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협력관계 구축 기대 -

인천광역시(시장 유정복)는 유정복 시장이 27일 인천시청을 방문한 우즈베키스탄 페르가나주 보자로브 하이룰로(Bozarov Khayrullo) 주지사 등 대표단을 접견하고, 양 도시 간 우호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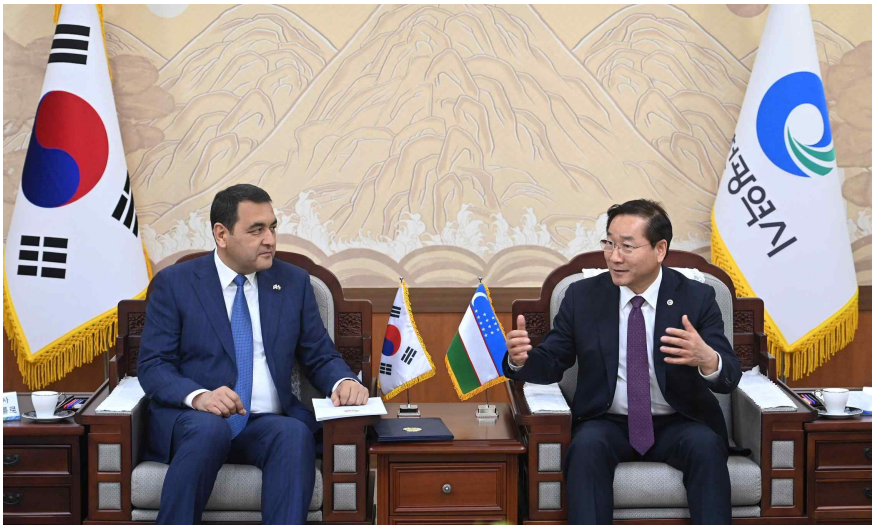
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이행숙 시 문화복지정무부시장이 직접 페르가나주를 방문해 우호도시 협정을 체결한 이후, 양 도시 간 실질적 교류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.

페르가나주는 우즈베키스탄의 주요 3대 도시로 420만 인구나 풍부한 자원을 가진 지역으로 정유, 비료, 화학 섬유 산업이 발전했으며, 코칸드(Kokand) 자유경제특구를 운영하는 등 외국인 투자 및 해외첨단 기술을 유치 하는 등 잠재력이 큰 시장으로 주목받고 있다.

보자로브 하이룰로 주지사는 “인천시와 우호도시 결연 체결 이후 첫

방문하였는데 환영해 주셔서 감사” 하라며 “페르가나주와 인천시는 양 국가의 경제자유구역이 소재하는 핵심 도시로서 경제자유구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면 양 도시가 상생발전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한다.” 고 말했다.

이에 유정복 시장은 “보자로브 하이룰로(Bozarov Khayrullo) 주지사님의 방문을 계기로 두 도시가 경제, 문화, 관광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한 교류를 통해 중요한 파트너가 되길 기대한다” 고 말했다.



※ 그 밖에 사진은 (11시) 인천시 홈페이지

‘인천시 인터넷방송’(<http://tv.incheon.go.kr/>) ‘포토인천’에 게시되어 있습니다.